

# 오늘부터 '문콕' 후 그냥 가면 '뺑소니'

### '물피 도주 처벌' 개정법 시행...연락처 안남기면 범칙금

### 음주차 견인비용 운전자 부담·국제면허증 국내 허용도

광주시 동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윤영민(56)씨는 생애 처음을 새 차를 구입했던 수년 전 일반생각 하면 지금도 화가 치민다. 누군가가 밤 사이 집 앞 주차장에 세워뒀던 새차의 옆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고 사라진 것이다.

윤씨는 "앞문쪽부터 뒷문쪽까지 모두 긁어 놨더라"며 "범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잡아도 수리비 보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 결국 포기

했다"고 말했다.

최진수(49·광주시 북구)씨는 최근 총장로 인근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운전석쪽 문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끝에 문 쪽을 훼손한 차량을 발견,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흔집이 난지 몰랐다. 보험 처리하겠다"는 말뿐이었다.

최씨는 "사고 한마디가 없어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피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는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등 각종 사고 이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 개정법에서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입학금 없앴던 사립대 "등록금 올려달라"

### 교육부와 합의 결렬...학생들 "입학금 즉각 폐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매꾸기 위해 등록금(수업료)을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명분 없는 사립대 입학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총협 회장단은 이날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협의회가 지난 13일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단 일주일만인 20일 등록금을 인상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했다"며 "입학금 폐지를 불모로 요구한 것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서울대·고려대 등 2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목표로 발족한 연합 단체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 광주·전남 '전기 도둑' 전국 최다

### 5년간 6304건 추징금 112억 8200만원...전체 13.58%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부과된 도전(盜電) 위약건수가 6304건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전기 위약단속 내역'(2012년~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기 공급 약관을 위반해 위약금을 부과한 건수는 6304건으로 추징금은 112억8200만원에 달했다.

전국 전기위약 단속 건수는 4만6432건(추징금 1484억2500만원)으로 전국 최다였다. 이는 전국

단속 건수의 13.58%에 해당한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남에 이어 ▲경기 북부 6073건(추징금 93억9800만원) ▲경남 4668건(89억5300만원) ▲전북 3946건(82억5900만원) ▲대전·충남 3386건(121억3600만원) ▲경기 3297건(368억) ▲대구 3225건(85억8100만원) 등의 순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9000건 이상 발생하는 전기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반 고객에게 추징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분별로 실시하는 전기위약 예방활동도 연 4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어르신 3초만 참으세요" 광주시 동구 보건소가 23일 보건소 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백남기 농민 사건' 경찰 현장 지휘관 대기발령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 문책성 인사조치됐다.

경찰청은 23일 신윤균 본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경찰청으로 대기발령하고, 이재영 서울정 치안지도관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 총경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으로 상황 대응을 지휘한 현장 관리자급 중 한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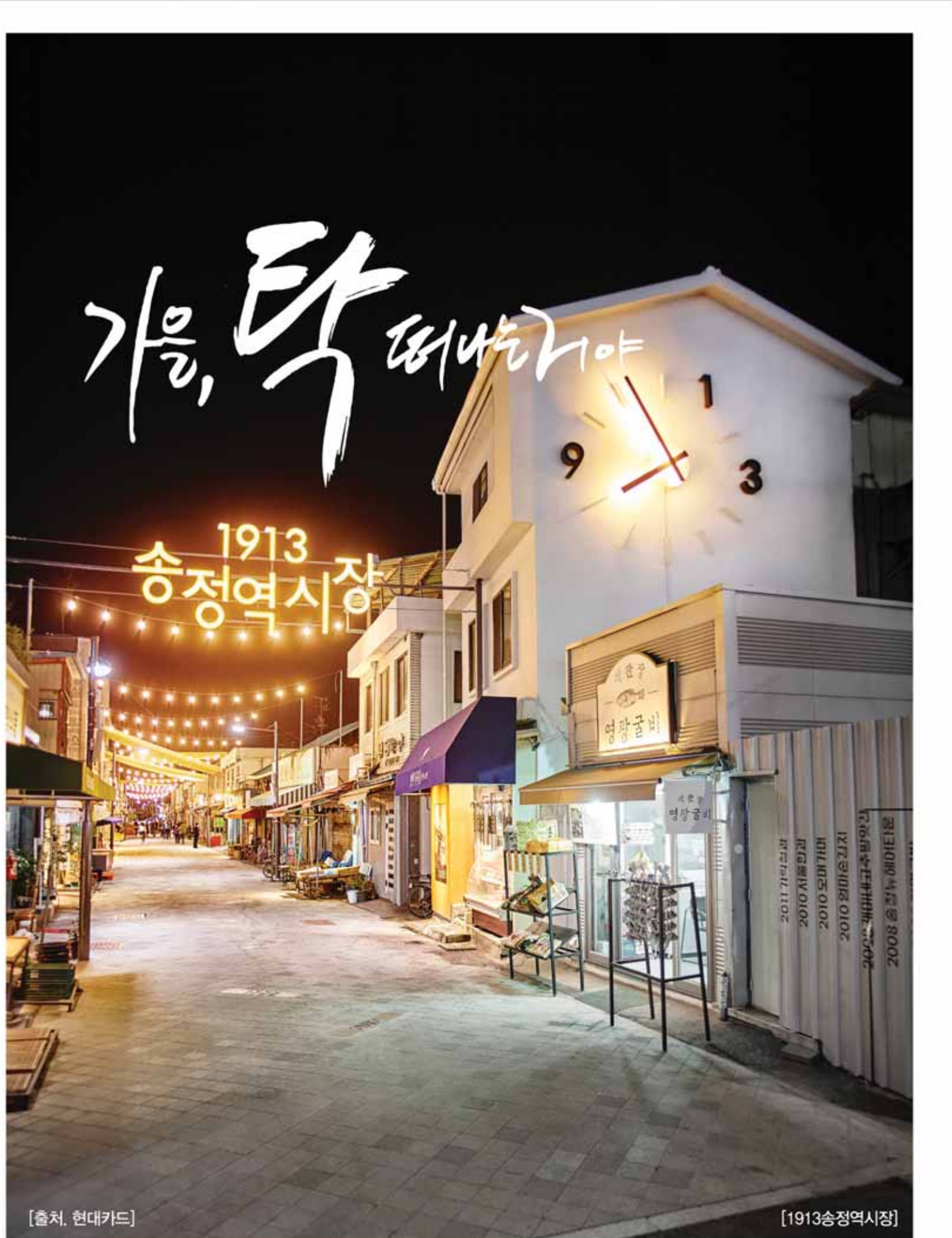
백 농민 사망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살수차 운용에 관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관련자들에게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과 당시 살수차 요원이었던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유족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여겠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은 해당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성격도 있는 만큼 소송 대표자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 농민 사망에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가 청구인낙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다양한 여행할인 혜택과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 가득한 가을 여행주간  
지금 바로 「여행주간」을 검색해 보세요. (http://fall.visitkorea.or.kr)

여행주간 10.21~11.5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6    해질 17:47    달뜨기 10:30    달지기 20:58

#### 감기 조심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0/21	보성	맑음	7/18
목포	맑음	11/19	순천	맑음	11/20
여수	맑음	13/18	영광	맑음	9/19
나주	맑음	8/20	진도	맑음	10/20
완도	맑음	12/20	진주	맑음	9/19
구례	맑음	8/19	군산	맑음	8/19
강진	맑음	9/20	남원	맑음	9/19
해남	맑음	8/20	흑산도	맑음	13/18
장성	맑음	7/19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먼바다(서)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37	04:25
		22:10	17:03
여수		04:48	11:25
		17:30	23:21

#### ◇ 주간 날씨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21(화)
9/22	9/21	10/22	9/23	9/18	8/17	7/19

#### ◇ 생활지수

- 기온: 관심
- 식중독: 낮음
- 자외선: 보통
- 피부질환: 보통